

KIA, 시작부터 '삐끗'...개막 2연패

인천 원정 SSG戰 6대11

초반 이의리·황동하 '와르르'...이틀 연속 마운드 엇박자 카스트로·나성범 홈런포 시동, 중심타선 막강화력 위안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개막 2연패를 당했다. 이틀 연속 마운드가 흔들렸다.

KIA는 29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6-11로 패했다. 전날 개막전 패배를 만회하지 못하며 시즌 초반 흐름을 놓쳤다.

개막 2연패는 2022년 LG와의 광주 개막 2연전 이후 4년 만이다.

패인은 마운드 난조였다. 경기 초반 대량 실점이 이어졌다.

선발 투수 이의리는 2이닝 4피안타 3사구 1탈삼진 4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다. 뒤를 이은 황동하도 1⅓이닝 동안 3개의 피홈런을 포함해 6실점을 내주며 무너졌다. 3회까지 9실점, 사실상 승부는 초반에 갈렸다.

그나마 불펜진은 제 몫을 다했다. 홍민규(1⅓이닝), 김시훈(1이닝), 최지민(1이닝)이 무실점으로 막았고, 김기훈도 1이닝 1실점으로 버텼다.

타선은 나쁘지 않았다. 중심 타선의 힘은 이틀 연속 확인됐다.

카스트로가 KBO 데뷔 첫 홈런을 포함해 4타수 2안타 2타점을 기록했고, 나성범도 시즌 1호 홈런을 터뜨렸다. 한준수도 멀티히트로 힘을 보탤었다. 다만 타선의 응집력 부족은 아쉬웠다. 무사 주자 상황에서 병살타가 반복되며 추격의 맥이 끊겼다. 이날 KIA는 병살타 3개를 기록했다.

1회를 무실점으로 넘긴 KIA는 2회 1사 1·2루에서 2타점 적시타를 허용한 뒤, 볼넷과 2루타가 이어지며 추가 2실점했다.

3회에도 5실점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내졌다. 선두타자 홈런을 시작으로 2루타, 그리고 2사 후 쓰러린 홈런까지 허용하며 대량 실점으로 이어졌다.

그래도 그대로 물러서지는 않았다.

KIA는 4회초 2사 3루에서 한준수와 데일의 연속 적시 2루타로 2점을 만회했다.

곧바로 솔로포를 내줬지만 7회 다시 불을 지폈다. 2사 후 김호령의 볼넷으로 만든 기회에서 카스트로가 투런포를 터뜨렸고, 이어 김도영의



KIA 타이거즈 카스트로와 나성범이 29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의 경기에서 7회 나란히 투런포를 터뜨린 후 베이스를 들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타이거즈 카스트로와 나성범이 29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의 경기에서 7회 나란히 투런포를 터뜨린 후 베이스를 들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볼넷 이후 나성범이 우익수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날리며 6-10까지 추격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8회말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더 내준 KIA는 결국 6-11로 패하며, 시즌 첫 승을 다음 기회로 미뤄야 했다.

전날 개막전에서도 아쉬움이 컸다. 3-4-5 클린

업 트리오가 분전했지만, 경기 후반 볼넷과 마무리가 무너지며 경기를 내줬다. 7회 3실점에 이어 9회말 4점을 허용하며 역전패를 당했다.

이틀 연속 마운드 기록을 드러낸 KIA는 31일 잠실야구장에서 디펜딩 챔피언 LG와의 주중 3연전에 돌입한다.

한편 개막 시리즈는 흥행에서도 기록을 남겼다.

다. 주말 기준 개막 2연전이 열린 전 구장이 이틀 연속 매진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28일에 이어 29일 잠실(2만3천750명), 인천(2만3천명), 대구(2만4천명), 창원(1만8천128명), 대전(1만7천명)까지 만원 관중이 들어왔고, 총 10경기에 21만1천756명이 입장했다. <주흥철 기자>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지난 27일 소년체전 양궁 광주대표선발전이 열린 광주국제양궁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빛나는 전통 이어 광주 양궁 주역으로 우뚝 서길”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소년체전 양궁 광주대표 선발전 참가 꿈나무 격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제55회 전국소년체전 종목별 예선대회 현장을 방문해 양궁 꿈나무들의 사기를 진작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지난 27일 소년체전 양궁 U-12, U-15 광주 대표 3차선발전이 열린 광주국제양궁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했다.

전갑수 회장은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광주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양궁인들이 주목하는 명실상부한 ‘양궁 도시’다. 3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하고,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해 각종 전국대회에서 효자 종목으로 우뚝 선 광주 양궁의 원동력은 초등부부터 실업팀까지 촘촘한 연계육성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며 “제2의 기보배”, “제2의 안산”을 꿈꾸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여러분 모두 광주 양궁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양궁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선발전에는 U-12에서 삼정초, 유촌초, 염주초, 문산초, 두암초, 성진초 등 6개교

49명, U-15에서는 윤리중, 동명중, 광주체육중 29명이 참가해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

경기 결과 남자 U-12부에는 곽래우(삼정초), 양지원(성진초), 강지우(염주초), 김주성(염주초)이 여자 U-12부에는 김지윤(유촌초), 윤혜원(유촌초), 김현아(염주초), 정세운(유촌초)이 뽑혔고, 남자 U-15부에는 김준서(광주체육중), 이성운(윤리중), 이하늘(광주체육중), 김용현(광주체육중)이 여자 U-15부에는 이경민(동명중), 김미소(광주체육중), 고유우(광주체육중), 심예인(광주체육중)이 각각 광주대표로 선발됐다. <박희중 기자>

험거워진 조직력, 구멍 뚫린 스리백

‘골대만 세번’ 흥명보호, 코트디부아르 평가전 0대4 참패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2026년 첫 경기에 나선 흥명보호가 아프리카 강호 코트디부아르에 호되게 당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28일 열린 코트디부아르와 친선경기에서 0-4로 크게 졌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만날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비한 모의고사를 망쳐 흥 감독의 고심만 깊어졌을 법한 경기였다.

월드컵에서 강호들과의 대결을 준비하면서 스리백 수비 전술을 점검해 온 흥 감독은 코트디부아르와 벌인 새해 첫 경기에서도 스리백을 가동했다.

초반 한국은 상대의 전방 압박에 수비라인을 잔뜩 끌어내린 채로 경기를 풀어나갔다.

하지만 워낙 수비에 숫자를 많이 두다 보니 역습 기회가 생겨도 공격수가 부족해 원활하게 공격작업을 전개하지 못하곤 했다.

전반 20분 오현규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온 뒤 잠시 공격이 활기를 띠는 듯했다.

그러나 전·후반 한 번씩 3분간의 휴식 시간, 즉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를 전반 20분께 가진 뒤로 코트디부아르의 공세가 거세졌다.

우리 수비 전술을 간파한 듯한 코트디부아르에 결국 전반 20분 선제골을 빼앗겼다. 한국 수비진은 계속 흔들렸다.

전반 43분 설영우의 중거리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온 뒤 전반 46분 시용 아당그라가 개인기로 한국 수비진을 뚫고 추가 골을 넣었다.

분위기를 끌어올리려던 후반 17분에는 쾨기 골을 얻어맞았다.

한국은 후반 31분 이강인이 페널티아크에서 원발로 슈팅한 공이 다시 골대를 맞고 나와 아쉬움을 늘려야 했다. 이후 후반 추가시간 상대 역습 때 수비 진용을 갖추려고도 윌프라드 싱고



캡틴 손흥민이 29일 열린 코트디부아르와 평가전에서 4-0으로 패하고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게 한 골을 더 내주며 고개를 숙였다.

한 경기에서 세 번이나 골대에 막히며 무득점에 그친 것은 불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숫자만 많을 뿐 험거운 수비 조직력으로 네 골이나 내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연합뉴스>

영암군민속씨름단 김민재 단양대회서 통산 19번째 장사 등극

영암군민속씨름단 김민재가 위더스제약 2026 민속씨름 단양온달장사씨름대회에서 통산 19번째 장사에 등극했다.

김민재는 지난 28일 충북 단양군 단양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백두급(140kg 이하) 결정전에서 장성우(MG새마을금고씨름단)를 3-1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이로써 김민재는 통산 16번째 백두장사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천하장사 3회까지 더해 통산 19번째 장사에 올랐다.

김민재는 들베지기 되치기에 첫판을 내줬다. 이어 밀어치기를 두 번 연달아 성공시키며 2-1로 승부를 뒤집었다.

네 번째 판에선 잡채기로 장성우를 눌렀다. 김민재는 경기 후 이번 대회에서 힘들게 우승하게 돼 더욱 의미가 크다”며 “지나해 이루



지난 28일 열린 위더스제약 2026 민속씨름 단양온달장사씨름대회 백두급(140kg 이하) 결정전에서 우승을 하며 통산 19번째 장사에 등극한 김민재가 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씨름협회 제공>

지 못한 전관왕을 목표로 계속 도전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AI페퍼스 외국인 주포 조이 “굿바이”

미국 올랜도와 계약, V리그 복귀 ‘무산’...다음 시즌 유럽행 확정

이번 2025-2026시즌 여자 프로배구 AI페퍼스에서 뛰던 외국인 거포 조이 웨데링턴(등록명 조이)이 미국 프로배구리그(PVF) 올랜도 발키리스와 계약했다.

올랜도 발키리스는 최근 조이와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구단 사회관계장무서비스(SNS)를 통해 “조이의 입단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올랜도는 2023년 플로리다주 올랜도를 연고지로 창단한 구단이다.

현재 PVF에는 8개 구단이 소속돼 있고, 시즌은 1월부터 5월까지이다.

조이의 올랜도와 계약은 ‘한 달짜리’ 한시 계약이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조이는 다음 2027-2028시즌에는 유럽의 한 구단과 입단 계약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이는 올 시즌 뛰었던 V리그 AI페퍼스와 재계약은 물론 국내 다른 구단과 계약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AI페퍼스 유니폼을 입고 V리그에 입성한 조이는 31경기(117세트)에서 총 880점(경기당 평균 28.4점)을 뽑아 득점 부문 4위에 올랐고, 공격 성공률 47.3%를 기록했다.

소속팀 AI페퍼스가 6위로 정규리그를 마친



조이(중앙) 출국 때 함께한 장소연 AI페퍼스 감독(맨 왼쪽) <AI페퍼스 SNS 캡처>

가운데 조이는 지난 21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팬페스트 행사에 일본인 아시아쿼터 시마무라 하루오와 나란히 참석했다.

또 출국 때는 장소연 감독이 인천공항까지 나와 배웅했다.

AI페퍼스는 조이에 재계약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했지만, 조이는 ‘보다 많은 승리를 할 수 있는 팀’을 원했던 것처럼 한국 대신 유럽 진출을 선택했다. <연합뉴스>